

10/5/99 (Tues.)
한국일보

Tuesday, October 5, 1999

한인징용 집단소송 미 대형법률회사 가세

「세기적 재판」으로 법조계 관심 고조

일제에 의해 징용에 처해졌던 한인들이 미국 법정에서 일본회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계속되는 가운데 22일 미국 유수의 법률회사인 「하겐스 버먼」(Hagens Berman)이 원고측 소송대리인으로 가세, 징용소송이 세기의 소송으로 치닫고 있다.

이날 김석운(페어차일드·79)·최재식(타코마·76)씨는 워싱턴주에서 활동하는 한인변호사 윤영일, 하겐스 버먼의 변호사 제프리 스프링 등을 공동소송대리인으로 앞세워 샌프란시스코 수피리어법원에 일본회사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이시가와지마 하리마 중공업과 스미토모 중공업, 최씨는 신일본제철과 미츠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7월 캘리포니아주가 2차대전중 자행된 반인륜범죄를 응징하는

특별법을 제정한 이래 한인으로서의 정재원(LA·77)씨가 한태호·신혜원 변호사를 공동소송대리인으로 다이헤요 시멘트 그룹을 소송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소장에서 「1944년 10월 다른 조선인 100여명과 함께 일본으로 보내져 먼저 이시가와지마 조선소에서, 이시가와지마 조선소가 폭격으로 파괴된 후에는 우리가 중공업 조선소로 끌려가 강제노역에 처해졌다. 징용기간 동안 극심한 구타와 기아로 고생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좋은 일자리를 주겠다는 일본 당국자의 말에 속아 징용에 응했으며 현재 화폐가치로 하루 2센트를 받으며 일출에서 일몰까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만 했다」고 폭로했다.

한편 하겐스버먼은 미국 13개주를 위한 소송대리인으로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승리로 이끌며 2,000억달러 이상의 배상판결을 받아낸 법률회사로서 지난 4월부터 나치독일 당시 징용인력을 썼던 독일회사를 상대로 한 집단 징용소송도 이끌고 있다.

〈한우성 기자〉

콘티넨탈 양복점



\$299 + Tax

(맞춤양복 한벌)

(310)854-0386

베버리 힐스

LA FAMILY 안경

검안+안경테+안경알

\$89부터

검안사가 직접 운영하는

패밀리 안경원

6가와 웨스트턴

Tel.(213)384-6565